

제목 : 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1차 회의 결과보고

<김교식, '22. 07. 14.(목)>

1. 회의개요

- 회의명 : 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1차 회의 (향후 발전 방향 협의)
- 일 시 : 2022. 7. 14.(목), 17:00~18:30 (필리핀 시간 기준)
- 장 소 : 필리핀 클락 호텔 서울 소회의실
- 참석인원 : 총 23명 참석
 - 회장 및 감사 : 2명 (윤희회장, 문영달감사)
 - 아총연 : 11명(김기영수석부회장, 류용오사무총장, 백진혁부총장)
(부회장 : 나성수, 국중렬, 황의훈, 공자영, 박의돈, 박현옥, 윤선규)
 - 한상연 : 7명(수석부회장 : 양성모, 임완순, 이창호사무총장,
문대진부총장, 부회장 : 박호선, 정현경, 박종완)
 - 기타 : 3명(재외동포재단 강모세부장, 김교식소장, 필리핀 신호철)

2. 회의 사진



윤희회장 인사



연합회장 및 아총연 & 한상연 수석부회장



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회의



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회의

※ 회의록

□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소개 및 참여독려

- 강모세 : 저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사업부장 강모세입니다.
- 한상부장 : 동포재단에서 22년차 근무로 한인회/한상 관련업무를 담당했으며 카자흐스탄/중국 대사관에서 동포 영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 2022년 제20차 세계한상대회 소개
 - 일 정 : 2022년 11월1일 ~ 3일 (3일간)
 - 규 모 : 국내외 2,500명
 - 장 소 :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 (UECO)
 2. 대회장 : 김점배 아프리카, 중동 연합회장의 공동대회장 7명
 3. 슬로건 :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
 4. 등록신청 안내 :
 - 세계한상대회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온라인 등록
 - 등록 마감일 : 2022년 8월 31일까지(이후 등록불가)
 - * **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참가자 선정 사전 등록 신청 추진**
 - 참가 등록비 : 150,000원/USD 120
 - 등록 문의 : 02-3415-0051(한상대회본부 사무국)
 - * Email : hanhangshowroom@okf.or.kr
 5. 기타 : (사)아총연 & 한상연 회장단 및 회원 참여 부탁

□ 아총연 & 한상연 연합회장 인사

- 윤희 연합회장 : 제가 연합회장에 당선되고 여러 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와함께 3년동안 수고 하시자 회장단 여러분들께 일일이 전화를 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 합니다.
- 전임 회장님들께서 (사)아총연 & 한상연 체계를 정립해 주셨는데, 아시아 한상 활성화를 위한 각오와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차기 총회에서는 한상의 활성화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하는 한상대회에 참석 디테일을 각국과 공유토록하며, 각국의 한상 모임에 꼭 참여 하겠습니다. 줌 화상회의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많은 협조 바랍니다.

□ 회의 참석자별 의견

- 공자영
부회장 | 이, 취임식 행사 보다 회장단 회의가 더 중요 하다.
회의시간 1시간으로 너무 짧습니다. 저녁만찬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시간을 더 할애 했으면 합니다.
- 국중렬
부회장 | 오늘은 틀린 것 같고, 한상과 아총 회의를 별도로 했으면 합니다.
아총/한상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추진 했으면 합니다.
- 류용오
사무총장 | 향후, 화상회의 통해 의견을 주고, 받고 수렴하여 아시아 한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영달
감사 | 이번 회의에 못오신분/안오신분 (소외, 갈등) 그분들도 참석 할수 있도록 회장께서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 많은 회원들이 참석토록 해주십시오.
- 윤선규
부회장 | 저는 회원들을 4년만에 처음 뵙는데, 4~5년전에는 외국에서 오신분들만 120명정도 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40여분 참석, 빠진분이 너무 많다. 쏘주 한잔 먹으며 화해 하고, 많이 참석하도록 회장단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
연합회장 | 회장단에서 “하나되는 아총연”을 만들도록 노력하여 앞으로는 많은 회원들이 참석 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현욱
부회장 | 캄보디아의 경우 교민수도 작고 (15,000명) 한상회장이 상공회의소등과는 협조 관계이나 한인회와는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사례가 다른 국가에도 있을것 같다. 함께 대안 마련이 필요 합니다.
- 윤희
연합회장 | 각 나라별로 코참/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등 많은 단체가 있으며 아총연/한상으로 영입하기는 어렵다.
그 동안 아시아한상연합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아 한상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개선 하겠습니다.
- 양성모
수석부회장 | 해외에는 코참(상공회의소 소속)/ 지역 상공인/ 옥타(해외 한인무역협회) 등이 있으며/ 한상(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모든 분)은 자생적 기구로 지역 한상회장으로 위촉 받은 분이 현지에서 어떠한 역량을 발휘 하느냐? 어떠한 혜택을 줄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 지,상사를 총괄하는 대표성으로 현지의 노력/지도력이 필요함.

국중렬 부회장 : 몽골의 경우는 한인 상공회의소가 한인회보다 먼저 출범하였으며, 박호선 한인회장이 상공회의소 전임 회장으로 있었기어 함께 하기가 용이 합니다.

박호선 부회장 : 몽골은 상공회의소와 한인회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10년전에는 월드 옥타를 만들어 친한 사람 위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같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총연/한상연에서 지부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필요 합니다.

양성모 수석부회장 : 지역 친화적인 아이디어로 “찾아가는 한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금융/건설등 업종별로 모임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윤희 연합회장 : 아시아 한상 모임을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향후, 빠른 시일내 명문화하여 행동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디테일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의훈 부회장 : 아총연이 생길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없던 조직을 만들 때 회원들이 볼 때 행사에 갖다왔다 뿐이지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덕목/ 경제력/ 좋은 자원의 활용이 필요 합니다

박종완 부회장 : 아총연은 3대 회장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립 된 것 같다. 그러나 한상 조직은 아직 “아시아한상의 가야 할길” 정립이 명확치가 않다. 앞으로 아시아 한상에서 무슨일을 해야 할지? 정립이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 계획 수립등 아젠다를 분명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회에 오기전 회원들께 1, 2, 3가지의 아젠더를 주어 생각해 온 상태에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 추진 방향 정립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기영 수석부회장 : 이제부터 만들어 봅시다. 한상 활성화 방향을 앞으로 서로 서로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갑시다.

정현경 부회장 : 무얼 어떻게 만들지가 불분명하면 안된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모임을 깨부시고 하기가 어렵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